

『범문정충절언행록(范文正忠 節言行錄)』 재구본에 대하여

홍현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고전소설 전공
hhyunsung@naver.com

- I. 머리말
- II. 재구본의 서지적 특징
- III. 재구 계기와 양상
- IV. 맺음말: 재구본의 자료적 가치

I. 머리말

이 글은 사후당(師侯堂) 윤백영(尹伯榮, 1888-1986)이 재구한 『범문정 충절언행록(范文正忠節言行錄)』(이하 『범문정록』) 권1의 재구 양상을 분석해 그 자료적 가치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¹⁾ 재구본의 서사 구성과 문체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고전소설 여성독자의 적극적 독서 실태와 여성작가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재구본은 1969년에 성책되었는데도 고전소설의 유형적 설정과 문체를 따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논의를 진행하며 다시 언급하겠지만, 재구본 초두에는 범중엄의 잉태를 알리는 태몽이 나오며 인물 묘사는 자연 경물에 외관을 비유하고 이로써 자질(資質)을 형상하는 전형적 방식을 따르고 있다.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치가 높은 문헌이지만, 이 재구본을 자세히 살핀 논의는 드물었다.²⁾ 사후당의 서예미(書藝美)를 연구한 김기열이 그 존재를 간단히 보고했고³⁾ 이어서 홍현성이 서지를 개략적으로 일별한 게 관련 연구의 전부였다.⁴⁾ 그런데 문헌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두 선행연구가 달랐다. 선행연구 가운데 김기열은 사후당이 전에 읽은 기억을 토대로 재구했다고 보았다.

김기열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각인지 사후당의 지인에게 들은 말을 옮긴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사후당이 전에 읽었던 경험에 의존해 재구했다는 시각에 회의적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실된 권1을 재구할 당시 사후당의 나이는 82세의 고령이었다. 읽은

1) 이 재구본은 필자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김인희 연구원이 찾아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 고전소설 연구자가 주목하지 않은 데는 다음 까닭이 있다. 먼저, 이 재구본은 고서수장고에 놓였지만 고문헌은 아니어서 藏書目錄에(『韓國古小說目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실리지 않았다. 또 마이크로필름으로도 제작되지 않았다(「마이크로필름 목록」, 『國學資料』 3, 문화재관리국 장서각, 1972). 필자도 학위논문을 준비하며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에 실린 表紙 사진을 보고 사후당이 재구한 문헌인 줄 모른 채 소장처를 추적했다. 다른 이유로는 장서각 문헌 관리 인력의 부족을 꼽겠다. 司書조차도 재구본의 존재를 몰라 장서각에 소장 여부를 문의한 지(2011. 5) 1년여 만에(2012. 4) 실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김기열, 「사후당 윤백영 한글 서예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8쪽.

4) 홍현성, 「〈范文正忠節言行錄〉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 23-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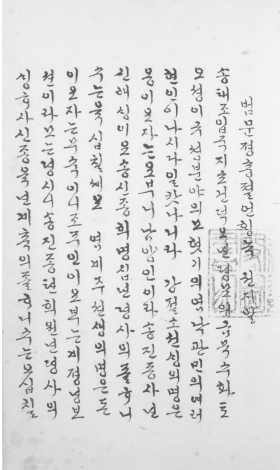
경험을 인정하더라도 세세한 표현까지 기억해 이를 복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후기에 재구 방식을 언급했는데 읽어봤다는 언급은 없다. 만약 읽어봤다면 이를 창작 방식과 함께 언급함으로써 재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으나, 사후당은 후기에서 뒷이야기와 송나라 사기를 참조해 재구했다고만 밝혔다. 사후당이 젊어서 읽어봤는지 여부는 증명할 수 없고 설사 읽어봤더라도 암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82세의 고령으로 세세한 표현까지 기억하고 복원했을 가능성은 낮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구본의 서지적 특징을 일별한다. 이러한 논의로써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내용서지를 일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재구 계기와 양상을 살핀다. 사후당은 전에도 여러 편의 문헌을 재구했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범문정록』 권1을 재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재구 양상은 크게 서사 구성과 서술 두 측면에서 검토한다. 뒷이야기에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 사건의 내막을 구성하는 방식과 인물 묘사를 살핌으로써 재구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겠다. 맺음말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문헌의 가치를 검토하겠다.

II. 재구본의 서지적 특징

유실된 권1을⁶⁾ 재구한 사람은 사후당이다. 사후당은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과 덕온공주(德溫公主)의 영손이고 해관(海觀) 윤용구(尹用求, 1853-1939)의 영녀이다. 해관은 서예가로 이름이 있었으며, 사후당 역시 한글 서예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사후당은 산돌 조용선에게 글씨를 가르친 장본인이기도 하다. 사후당은 어려서 궁에 출입해 궁중 문화에 박식했고 특히 국문소설을 많이 읽어 철종의 비가 소설을 가지고 궁에 들라고 명했을 정도였다.⁷⁾ 궁중 예법·복식 연구에 크게 기여

-
- 5) 여기서 ‘뒷이야기’는 후일담이 아니라 권2부터 전개되는 권1에 이어진 이야기를 지칭한다.
 6) 권1의 유실 시기는 홍현성, 앞의 논문, 23쪽 참조. 권1은 1928년 이후 유실했다. 演慶堂 『漢文目錄』에 따르면 課長 李恒九가 『범문정록』 권1을 大正 10년(1921)에 반납했다. 천혜봉, 「藏書閣의 歷史」(『藏書閣의 歷史와 資料의 特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367쪽에 따르면 繼妃 尹氏는 演慶堂에 머물다 1928년 樂善齋로 이사했고, 이때 한글소설류를 수습하여 갔다. 冊函 채로 옮겼을 터이니, 1921년 이항구가 반납했던 권1 역시 1928년 이사 때 이미 있던 함에 담겨 낙선재로 이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7) 《주간여성》(한국일보사, 1973년 9월) 87쪽. 김기열, 앞의 논문, 6쪽에서 재인용.



도1-본문 첫 장

는 별도 제첩 없이 ‘范文正忠節言行錄’이라 썼다. 표지에 분류표를 붙였고 여기에 도서 분류 사항 및 청구기호를 기입했다. 기입한 청구기호는 ‘4-6809’로 장서각 소장 『범문정록』과 같았다. 분류표에 2006년 실물을 확인했다는 표시로 작은 스티커(검2006)를 붙였다.

표지를 넘기면 공격지가 있다. 후기에 “책 제도와 궁중 글시와 흡사하게” 재구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공격지는 이런 이유로 넣은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공격지는 낙선재본 소설을 위시한 궁중 문헌에 보인다. 빈 종이인 공격지는 실용적 쓰임새는 없으나 문헌의 품위를 높이는 기능이 있다. 재구본에 공격지를 넣음으로써 궁중 문헌의 외형에 더 가깝게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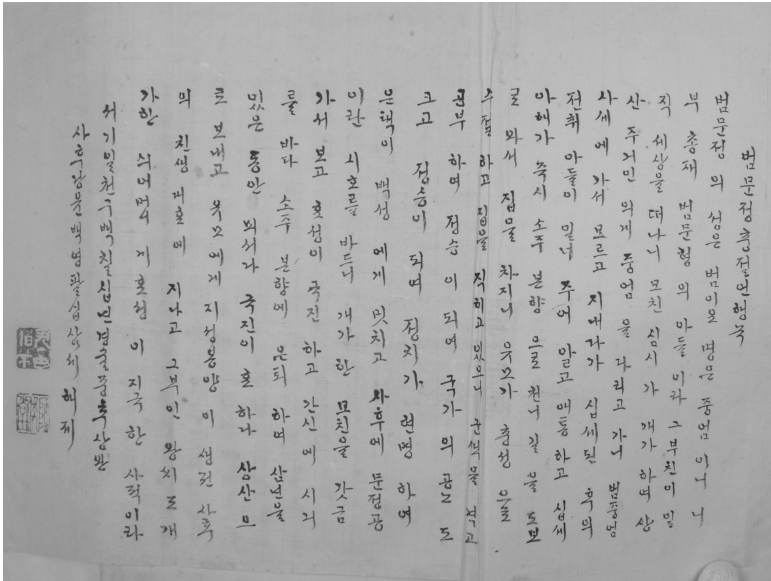
재구본의 권수제(卷首題)는 ‘범문정충절언행록’이다. 권수제를 쓴 곳에 찍은 장서인(藏書閣圖書印)은⁹⁾ 여섯 글자짜리로 권2-31에 찍은 “藏書閣印”과 다르다. 장서인은 공격지 안쪽에 걸쳐 글자가 나뉜 상태다(도1 참조). 공격지를 빼고 재구본 본문은 모두 90쪽이다. 면마다 10행(行), 행마다 약 20자(字)를 썼으며 분량은 후기를 더해 원고지 120장 정도로 환산된다. 『범문정록』 권2-31 역시 면마다 10행이 쓰였는데, 이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글씨는 낙선재본 소설에 보이는 유려한 자형은 아니지만

했으며 낙선재본 소설을 두고 “조선 왕실의 소설은 문자가 좋고 윤곽이 크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며 일거일동을 섬세하게 그려 읽을 수록 끌려든다”⁸⁾ 평하기도 했다. 낙선재 소설의 마지막 독자로 일컬어지는 사후당의 평은 연구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후기에 따르면, 사후당은 재구본을 1969년에 성책했다. 현대에 성책했지만 이 문헌은 한지에 붓으로 썼으며 홍사로 오침 선장을 해 고서(古書) 모양을 띠고 있다. 다만, 표지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능화문 황지가 아닌 두꺼운 황색 도화지를 사용했다. 표제

8) 《중앙일보》, 1966년 8월 25일자, 5면.

9) 藏書閣에 소장된 고서 가운데 이 여섯 글자 장서인을 찍은 문헌은 수백 책에 불과하다. 이 장서인은 글자 테두리가 거친 것으로 보아 석재로 만든 듯하다. 마멸이나 파손 등의 이유로 단기간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도2-해제

판독은 용이한 편이다. 사후당이 기필(起筆)할 당시 82세의 고령이었음을 감안하면 필력이 녹록지 않다고 하겠다.

공격지에 별지로 작품 해제를 붙였다.¹⁰⁾ 해제 작성 시기는 1970년 8월 초순으로 재구본을 성책한 시기에서 약 10개월 뒤다. 번다한 감이 있지만 전문을 인용하겠다.

범문정충절언행록

범문정의 성은 범이요 명은 중엄이니 니부총재 범문형의 아들이라 ① 그 부친이 일직 세상을 떠나니 모친 심사가 개가하여 상산 주거인의게 중엄을 다리고 가니 범중엄 사 세에 가서 모르고 지나다가 십 세 된 후의 전취 아들이 일너 주어 알고 ② 애통하고 십 세 아해가 즉시 소주 분향으로 천니 길을 도보로 와서 집을 차지니 유모가 충성으로 수절하고 집을 직히고 있으니 군색을 격고 공부하여 ③ 정승이 되어 국가의 공노도 크고 정승이 되어 정치가 현명하여 은택이 백성에게 맞치고 사후에 문정공이란 시호를 바드니 ④ 개가한 모친을 갖금 가서 보고 효성이 극진하고

10) 사후당은 『범문정충절언행록』을 포함해 낙선재본 소설 『문장풍류삼대록』, 『보은기우록』, 『징세비태록』, 『현씨양옹쌍런기』, 역사서 『정사기람』 등에 해제를 남겼다. 마이 크로필름으로 문헌을 촬영할 때, 사후당이 쓴 '해제'를 찍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물을 검토하면 더 많은 해제를 확보할 수 있다. 사후당이 쓴 해제는 고전소설 수용미학 논의를 진작할 자료로 큰 가치를 지녔다. 이에 대한 논의는 稿를 달리해 진행하겠다. 별도 논고를 기약한다.

간신에 시기를 바다 소주 본향에 은퇴하여 삼 년을 있는 동안 뵈셔다 극진이 효하다 상산으로 보내고 유모에게 지성봉양이 생전 사후의 친생 대효에 지나고 그 부인 왕씨도 개가한 석어미니게 효성이 지극한 사적이라

서기 일천구백칠십 년 경술 중추 상완
사후당 윤백영 팔십삼 세 해제¹¹⁾

①-②는 모친의 개가로 인해 범중엄이 겪는 초년고생을 서술한 대목이다. ①-②의 내용은 권1-2에 해당한다. ③은 관료로서 범중엄이 활약하는 부분을 서술한 대목이다. 해당 내용은 전체 서사 대부분을 차지한다. ④는 범중엄이 소주로 낙향한 뒤 모친을 모셔와 봉양하는 부분을 서술한 대목이다. ④의 내용은 권11-13에 해당한다.

해제(解題)의 내용은 세 꼭지로 묶인다. 세 꼭지는 ①-② 범중엄의 초년, ③ 관료로서 활약, ④ 모친을 모신 효성이다. 『범문정록』의 서사 흐름은 ①(-②)→④→③이지만, 사후당은 위와 같은 순서로 서술한다. 이야기 흐름을 고려하면서도 작품 특징을 위주로 해제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난다.

요약 정도를 본다면, ③이 가장 큰 폭이다. 관직 편력은 작품에서 차지한 분량은 많지만 해제에 할애된 부분은 적기 때문이다. 작중 범중엄은 여러 보직을 거치며 이채로운 경력을 쌓는다. 그런데 경력은 이채롭지만 남주인공의 관직 편력은 여타 대장편소설에 흔히 나온다. 사후당은 독서 경험에 비춘 판별을 토대로 ‘관직 편력’을 간단히 언급한 것이다.

①-②의 축약 정도는 낮다. 『범문정록』에서 범중엄의 초년은 두 책에 걸쳐 펼쳐지며 권2 중반에 급제하고 혼례를 올려, 작품 전체에 할애된 분량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사후당은 해제 1/3 정도를 할애해 범중엄이 초년고생을 겪는 이유와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대장편소설에 남성 주인공의 초년고생을 그린 삽화가 흔하지 않고 사대부 여성이 남편 사후 개가하는 설정 역시 매우 드물기에 사후당이 해당 부분을 특징으로 보고 해제에 일정 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여겨진다.

해제의 ④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다수 대장편소설은 가문 내용을 다룬다. 이를테면 구준(寇準, 北宋, 961-1023)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구래공정충직절기』만 해도 실존했던 인물이 대거 등장하지만

11) 『范文正忠節言行錄』 권1, 별지. 이하 인용문의 문장부호 및 밑줄과 강조는 필자 임의.

서사 전반에 걸쳐 가문 내용을 허구로 설정한다.¹²⁾ 이와 달리 『범문정록』에서 가문 내용은 찾기 어렵다. 모친이 개가한 일은 분명 큰 사건이지만 심 부인이 악행을 벌이지 않아 심각한 가문 내용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또 범부(范府) 남성은 모두 일처(一妻)만 두고 해로하며 부인에서 며느리까지 다 현숙해 이렇다 할 가문 내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양상은 가문 내용을 안돈히는 내용을 위주로 서사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대장편소설과 많이 다르다. 사후당은 범중엄 내외가 가문 내용 없이, 개가한 심 부인을 봉양하는 대목을 특색으로 꼽아 기술한 것이다.

본문은 서(序), 본이야기, 후기 순으로 나뉘며 서(序)는 내용상 다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송(北宋) 유명 문인 및 관료를 호명한다. 북송오자(北宋五子)와 주희(朱熹)로 시작해 사마광(司馬光)과 범중엄(范仲淹)을 언급하고 호명을 마친 뒤 도학으로 평생을 보내거나 입조해 선정을 펴기도 한다며 범중엄은 후자에 속한다고 서술한다. 이는 사대부 남성의 삶에 청운(靑雲)과 백운(白雲) 두 길이 있다는 의미로, 범중엄이 관료로 출세한 내용을 염두에 둔 서술로 판단된다.

이어서 범중엄에 얽힌 고사 두 가지를 보여준다. 앞은 손바닥 귀신의 위협, 뒤는 관상쟁이를 만나 재상 아니면 의원을 하겠다고 밝히는 고사이다. 이 고사에서 범중엄은 독서 중 손바닥 귀신의 위협을 받지만 의연히 글자(大字)를 써 대처한다. 『범문정록』 권2에서 범중엄이 얼굴 큰 귀신(나 무귀신)을 만나는 삽화를 고려해 한적(漢籍)에서 발췌한 것으로¹³⁾ 보인다. 두 번째 고사는 『능개재만록(能改齋漫錄)』에서 출전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재상을 못 하면 천시받아도 의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그가 지닌 목민관 자질을 드러낸다. 두 고사는 본이야기에 앞서 범중엄의 인품과 자질을 드러낸다.

서(序)는 “거묘당지상즉우기군 처강호지간즉우기민 선턴하지우이우

12) 심경호, 「낙선재본 〈구래공정충직절기〉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14권 3호(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50쪽; 이민정, 「〈寇萊公貞直節記〉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43-46쪽.

13) 재구본 序에 보이는 손바닥 귀신 만나는 고사의 출전은 미상이다. 다만, 『범문정록』 권2의 얼굴 큰 귀신 만나는 삽화는 陸佃, 『增修埤雅廣要』에 보인다. 범중엄이 귀신을 만나 의연히 대처하는 이야기 유형이 여럿이었고, 사후당은 손바닥 귀신 만나는 이야기 유형을 별도 문헌에서 확인한 듯하다. 한편 『범문정록』 권2에서 범중엄이 귀신을 만나는 삽화는 段成式, 『酉陽雜俎』 소재 郭元振 일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14) 사후당이 吳曾, 『能改齋漫錄』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같은 이야기를 이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후턴하지나익"이라는 범중엄의 발언으로 마무리된다. 위 글귀는 범중엄의 〈악양루기〉 구절이다. 〈악양루기〉에는 “居廟堂之高則憂其民, 處江湖之遠則憂其君”이라 쓰여 재구본과 차이가 있다.

재구본의 서(序)는 독특하다. 한글 고전소설 가운데 서문이 들어간 작품은 드문 편이다. 해당 작품으로 이화여대소장본 『소현성록(蘇賢聖錄)』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또 재구본의 서(序)는 내용이 단순하지 않고 일반적인 서문(序文)과도 다르다. 창작 의도나 계기를 밝히는 일반적인 양상과 달리, 재구본의 서(序)는 방금 언급했듯이 판이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 서문에 창작 의도나 재구 계기 등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사후당이 한글 고전소설에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서(序)를 넣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사후당이 『범문정록』을 전에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쳐 말하면, 원본에 서문이 있었고 사후당이 이를 복원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검토했듯, 이는 증명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설사 읽은 기억이 있더라도 80대(代) 노인이 수십 년 전 읽은 내용을 그대로 복원했을 가능성은 낮다. 만약 원본에 서문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확한 해명은 어렵지만, 다음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후당은 재구본을 쓰며 서(序)와 발(跋)에 해당하는 후기를 갖춘다. 그래서 재구본은 서·본문·발을 온전히 갖춘 형태이다. 재구본은 권2 이하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형태만 본다면 독립된 문헌인 셈이다. 이 글에서는 사후당이 손수 쓴 문헌이기에 재구본이 지닌 독립성을 고려했다고 본다. 재구본은 권2 앞에 놓이는 『범문정록』의 부속 문헌이면서, 동시에 작가가 다른 문헌이다. 그 결과 재구본은 일정 부분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재구본이면서 자신의 창의력이 발휘된 저작이라 문헌의 독립적 면모를 부각하고자 사후당이 어울리는 내용을 고려해 서(序)를 넣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악양루기(岳陽樓記)〉에서 따온 명구(名句)를 뒤로하고 본이야기가 시작된다. 재구본의 본이야기는 권2 처음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마무리되기에 권2의 첫 문장과 재구본의 마지막 문장은 매우 유사하다.¹⁵⁾ 본이야기

15) 『范文正忠節言行錄』 권1, 88쪽. “통곡하며 막힐 듯하니 심시 보던듯 그 뜻이 망”하여
 숫치 누르지 못홀지라 홀일업서 아자를 붓들고 천향누를 드리워 자초지종을 말하니
 차청호회라.”; 『范文正忠節言行錄』 권2, 1쪽. “그 거동이 망망하여 능히 숫치 누르지
 못홀지라 심시 홀일업서 으즈를 붓들고 천향누를 드리워 자초지종을 다 날오고 성암공

뒤에는 후기가 자리한다. 후기는 모두 235자(띄어쓰기 포함 306자)로 창작 계기와 방식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

Ⅲ. 재구 계기와 양상

1. 재구 계기

여기서는 재구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재구 계기와 방식을 검토하겠다. 재구 계기를 검토하며 사후당이 이전에 했던 재구 작업도 일별한다. 사후당은 이 문헌만 재구한 게 아니었다. 그는 이전에도 문헌을 재구한 경험이 있었고 이러한 경험이 축적된 다음, 특별한 '계기'가 보태져 『범문정록』 권1을 재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재구 계기를 살핀다. 아래는 재구본 『범문정록』 권1 말미에 있는 후기이다.

문정공 범중엄은 송나라 정승으로 충절과 인민에게 혜택이 천고의 추앙하는데 그 가정이 국문소설노 궁중의 잇다가 장서각으로 임치되었는데 국문소설들이 역사의 성명 업는 것이 만흐나 이는 송나라 사기에 잇는 현인군자인대 제일권이 낙질되어 가정들과 각 책사의 구하나 업는 고로 ㉠ 다른 소설과 특별하다고 장서각 장이 심이 차석하고 완전이 하고자 하시기로 ㉡ 송 나라 사기의 잇는 범중엄 행동과 하권의 말삼들 한 것을 종합하여 책 제도와 궁중 글시와 흡사하게 하여 ㉢ 필즉필하고 식즉삭하여 ㉣ 일 년만의 성권하시오이다

단기사천삼백이년 기유 중동 상완¹⁶⁾

사후당 윤백영 팔십이세 서¹⁷⁾

인용문에 따르면, 사후당은 장서각장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재구를 결심한다. 후기에 사후당이 자발적이었는지, 장서각장이 권유했는지 서술은 다소 모호하다. 이 글에서는 장서각장이 권유했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사후당은 전에도 문헌을 재구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의 목류와 분피 다 소취 잇시를 널오니.”

16) 1969년 11월 초순.

17) 『范文正忠節言行錄』 권1, 89-90쪽.

경험을 장서각장이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후당은 『법문정록』 권1을 재구하기 전에 다른 문헌을 재구한 경험이 있다. 다음은 《선데이서울》 제7호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지난 5월 초순, 창경원 안 장서각 열람실에서 D대학 국문과 학생들이 열람할 때 찢긴 낙선재 문고 옛 궁중소설 『재생연전』 34권째 중간 한 장 두 「페이지」를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 『재생연전』 총권 52권 통독에 들어가 현재 34권째 읽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나머지 18권을 연말까지 끝내고 정초에 그 대목을 90년째 간직해 내려온 한서지(漢書紙)에 그대로 재생시킬 예정. 할머니는 1백%까지 완벽하게 그 대목을 옮겨놓을 자신이 있단다.

[…]

윤씨 할머니는 전에도 한 번 읽은 기억을 되살려 ㉠ 자기 아버지가 쓴 책 30권 중 없어진 1권을 보완해놓았고, 10년 전에는 ㉡ 20권 중 1권이 빠져 제값을 못 받는다는 친척의 말을 듣고 앞뒤 권을 읽은 뒤 없어진 책에 해당되는 내용을 되살려 옛날 종이로 글씨까지 꼭 같이 한 권 책을 맞추어주어 많은 값을 받게 해준 적도 있다.¹⁸⁾

위 기사는 1968년 11월자 「두 페이지 복원을 위해 52권을 통독하는 할머니」이다. 대학생이 훼손한 『재생연전』 권34의 한 장을 복원하려 사후당이 전질을 읽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¹⁹⁾ 후기에 재구본 권1을 근 1년 만에, 1969년 11월 초순에 이르러 성책했다고 밝혔으니 『재생연전』 복원 작업은 1968년 말에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기사에 따르면 사후당은 부친 해관의 저작 30책 가운데 한 책을 복원했다(㉠). 만약 해관이 소설을 쓰고 사후당이 재구했다면 이 문헌은 가장본(家藏本)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사후당 소장 『사성록』에 일찍부터 주목했으면서도 거질 소설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해관이 썼다는 30권짜리 문헌은 가장본이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후당과 낙선재의 관련 그리고 책 수를 염두에 둘 때 해관의 저작은 낙선재본일 가능성이 높다. 낙선재본 가운데 30책 소설은 『엄씨효문청행

18) 신동직, 「두 페이지 복원을 위해 52권을 통독하는 할머니」, 《선데이서울》 7호(서울신문사, 1968년 11월). 인터넷 《서울신문》에서 재인용.

19) 『재생연전』 권34의 42a-42b쪽에서 사후당의 필적을 확인할 수 있다. 사후당이 재구한 한 장은 40b-41a에도 나온다. 42a와 40b는 같다. 이야기 흐름을 따지면 '42a-42b'는 그 위치가 적절하다. 인터넷에 올릴 때 생긴 착오로 보인다.

록』, 『취승루』 두 종이 있으나 두 소설 가운데 사후당의 필적은 없다. 또 기사 낱짜(1968. 11)가 『범문정록』 권1을 재구한 시기(1969. 11)보다 더 앞서니 『범문정록』도 아니다.

책 수는 다르지만, 장서각에는 해관이 쓰고 사후당이 재구한 문헌이 존재한다. 바로 『정사기람』 80책이다.²⁰⁾ 사후당은 부친 해관의 저작 80책 가운데 권19 한 책을 재구한다. 다음은 사후당이 『정사기람』 권19를 재구하고 쓴 후기이다.

선친 해관공께서 중국 정사 한문을 국문으로 번역하사 팔십 권을 하여 고종 대황태계 진상하섯는데 십구재 권이 낙질이 되어 녀식 윤백영이가 애석하와 동한 사기에서 국문으로 번역하여 십구재 권을 하여 완전한 책이 되게 하오나 무식하여 정묘하지 못하와 황괴하옵고 선친에 유적을 뵈오니 애통한 감구지회를 측량치 못하나이다 칠십구 권 국한문이 다 선친 친필이요 타인에 글시는 업고 십구재 권 하나만 본인에 글시오이다

단기 사이구칠 년 등하 상완
사후당 윤백영 칠십칠세 서²¹⁾

해관은 고종에게 중국역사를 한글로 번역해 80권을 진상한다. 그 가운데 권19가 없어지자 사후당은 동한사기(東漢史記)를 한글로 번역해 채워 넣는다. 이 책을 재구한 시기는 1967년이다. 따라서 1968년 11월 기사에서 사후당이 재구했다고 한 부친의 저작은 『정사기람』일 것이다.²²⁾

이제껏 논의를 정리하면 이렇다. 사후당은 10여 년 전에 친척이 소장하고 있던 20권 가운데 한 책을 재구했다(㉠). 또 그는 『범문정록』 권1 재구 전에 『정사기람』 권19를 재구했고(㉡), 한 해 뒤 『재생연전』 권34의 한 장을 복원했다. 재구 경험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장서각장은 사후당이 문헌을 재구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범문정록』 권1의 재구를 부탁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범문정록』 권1을 재구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장서각장의 부탁'으로 볼 수 있다.

20) 尹用求, 『正史紀覽』(정사각 소장, 청구기호: 2-149).

21) 『정사기람』 권19, 159-160쪽.

22) 『정사기람』 권책 수와 《선데이서울》 기사에서 밝힌 수가 크게 차이 난다. 이는 사후당을 인터뷰한 기자가 '여든'을 '서른'으로 잘못 들었거나, 자신이 메모한 '80'을 '30'으로 잘못 봤을 수 있다.

선행연구 가운데 한길연은 여성 소설가가 나오는 동인으로 가문 내 “여성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어문활동을 용인해주는 관대한 문화적 풍토”를 꼽는다.²³⁾ 사후당은 한적(漢籍)을 번역할 정도의 소양을 갖춘 여성이다. 인용문에 드러나듯 사후당은 부친(父親) 해관의 저작 『정사기람』 권19가 비자 ‘동한사기(東漢史記)’를 번역해 채워 넣는다. 이는 그가 어려서부터 남성 못지않은 교육을 받은 사실을 보여준다. 또 국문소설을 많이 읽어 궁까지 이름을 알렸다는 기사를 보면²⁴⁾ 그가 소설 독서를 용인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했던 정황도 드러난다. 소설 독서를 인정하는 분위기는 할머니 덕은공주 덕분인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공주는 사가(私家)로 나올 때 많은 한글소설을 가져온다. 덕은공주도 혼인해 사가로 나오며 많은 국문소설을 지참했을 터이고 사후당은 자라며 자연스럽게 가장(家藏)된 다수의 소설을 접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문 내 문화적 토대가 있어, 사후당은 한적을 번역할 역량과 서사를 재구할 역량을 고루 갖추며 성장했다고 하겠다.

한편 후기에 따르면 사후당은 『범문정록』 권1을 재구하며 역사 기록을 참조한다. 후기에서 말하는 역사 기록은 범중엄 관련 기록 전반을 지칭하는 듯하다. 재구본에서 『송사(宋史)』를 수용한 부분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재구본 서(序)에 보이는 고사의 출전은 요즘 말하는 역사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후기에 언급된 “송나라 사기”란 필기잡록을 포함한 한적 사료 전반을 지칭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후당은 “송나라 사기의 잇는 범중엄 행동과 하권의 말삼들 한 것을 종합”하고 “필즉필하고 식즉삭하여” 일 년여 만에 성책한다. 필즉필하고 식즉삭했다는 말은 한적의 요긴한 부분만 발췌해 썼다는 의미로 일종의 짜깁기라 할 수 있다.

역사서를 참조해 짜깁기하는 방식은 우리 고전소설에서 많이 쓰였다.²⁵⁾ 이를테면 『한조삼성기봉』은 『후한서(後漢書)』, 『남계연담』은 『황명통기(皇明通記)』를²⁶⁾ 짜깁기해 활용했다. 『범문정록』 권2 이후 이야기

23) 한길연, 「〈백계양문선행록〉의 작가와 그 주변」, 『고전문학연구』 27집(한국고전문학회, 2005), 357쪽.

24) 각주 7번 참조.

25) 임치균, 「18세기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일양상 -〈옥환기봉〉을 중심으로-」, 『韓國古典研究』 8(한국고서연구학회, 2002), 158쪽; 홍현성, 「〈남계연담〉의 특징과 그 의미」, 『정신문화연구』 34권 4호(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22쪽.

26) 홍현성, 위의 논문, 22-27쪽.

만 하더라도 『송사』부터 『범문정공연보(范文正公年譜)』, 『증수비아광요(增修埤雅廣要)』 그리고 『북송연의(北宋演義)』 등 다양한 문헌을 활용했다.²⁷⁾ 사후당은 범중엄이 실존했던 인물이고 역사 인물과 사건을 다룬 고전소설이 다양한 사료를 직·간접 수용했던 사실을 익히 알아, 이를 염두에 두고 “송나라 사기”를 참조했다고 후기에 언급한 것이다.

2. 재구 양상

대장편소설은 분량이 길기에 이야기 중반, 이전 서사를 요약한 대목이 나온다. 이때 편지글이나 인물 발화를 가지고 이전 서사의 대강을 독자에게 상기시키는 경우가 많다. 『범문정록』 역시 이러한 대목이 있다. 다음은 구양수가 인종(仁宗) 앞에서 범중엄이 겪은 간고를 말하는 대목이다.

명일 빅관의 도회를 보드시고 만되 퇴하피 홀노 구양상국을 머물너 교유셔를 지이시고 범공의 스적을 뜨르신타 [···] 부복 주왈

“과연 그 스단이 허시 아니와 범문형이 죽은 후 그쳐 심시 여츄여츄호 쯤엄이 칠년을 쥬가의 길니여 그췌 어려 모르논 거슬 쥬가의 전출이 기부의 스랑호를 불긴이 녀여 쯤엄의 봄솜을 췌치니 십 세 유치 피발통곡호고 고향 소쥬로 도라오니……”²⁸⁾

유실한 권1의 줄거리는 뒷이야기를 참조하고 위와 같은 인용문을 토대로 대강의 재구는 가능하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구양수는 심 부인이 개가하는 과정이나 연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여츄여츄”했다고만 말할 따름이다. 이 “여츄여츄”가 일컫는 사건이 심 부인 개가(改嫁)의 내막에 해당한다. 심 부인의 개가는 서사 초반 안배된 큰 사건이지만 뒷이야기에서 개가했다는 사실만 강조될 뿐 그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개가의 내막은 사후당이 앞뒤 이야기를 고려하며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개가의 내막을 구성하는 양상을 들여다봄으로써 재구 양상의 특징을 살필 수 있고 아울러 사후당의 역량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권2는 범중엄이 심 부인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²⁹⁾

27) 홍현성, 앞의 논문(2013), 92-103쪽.

28) 『范文正忠節言行錄』 권24, 2-3쪽.

권1 말미에는 범중엄을 시기하던 백홍이 사실을 알리는 장면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앞서 심 부인의 개가가 나오고 더 앞서서는 범윤보의 죽음이 나올 것이다. 이는 위 인용문에서 구양수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권1에 안배되었을 주요 사건을 추리면 다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다섯 가지 주요 사건은 ① 범윤보의 낙향, ② 범중엄의 출생, ③ 범윤보의 죽음, ④ 심 부인의 개가, ⑤ 양부슬하 양육이다. 이 가운데 범윤보의 낙향과 죽음, 범중엄의 출생은 원본에 단일 사건으로 다뤘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관의 낙향이나 독자(獨子)의 탄생은 독자(讀者)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복잡한 계기가 그다지 필요치 않은 사건 유형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에 비해 ④ 심 부인의 개가는 여러 계기적 사건이 중첩된 결과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대부 여성의 개가는 우리 소설사에 매우 낮은 설정이며, 윤리적 판단이 결부되는 논란이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독자를 납득시킬 만한 다단한 계기적 사건이 필요할 법하다. 사후당의 서사 구성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권22에 보이는 다음 서술은 심 부인이 개가하는 과정을 추정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범문정은 전신이 위정으로 당류를 도아 면신이로되 혼 처를 제어치 못하여 창첩 옥난을 죽이니 난이 원이 미쳤는 중 천상의 도라오미 동정농녀로 숙연이 이서 드시 모드미 대개 난이 요악함을 위징도 짓거 아닛는 고로 다시 좃치 아녀 호호호 부귀를 농녀로 디브러 누리니 원이 갑흔 둥 도군이 죄적하게하니 옥난이 드시 숙칙를 못고져 홀츠 [...] 명비 이에 물니치니 난이 귀미 되어 가란을 비즈니 도군의 수는 이십칠일 적키이로되 심시의 상눈흐미 허다 조해 옥난의 조해오³⁰⁾

위 인용문에 따르면 작중 범중엄은 전생에 당(唐) 태종(太宗)을 보좌하던 명관료 위징(魏徵)이었다. 위징에게 원한이 있던 창첩 옥난은 귀매가 되어 범부(范府)에 가란(家亂)을 빚었다. 여기서 가란으로 언급된 사건이

29) 『范文正忠節言行錄』 권2, 1쪽. “화설 그 거동이 망망하여 능히 쫓지 못하리라 심시 홀일업서 으즈를 붓들고 천향누를 드리워 즈초지종을 다 널오고 성암공의 목쥬와 분피 다 소취 잇시를 널오니 공직 모친 무릅히 업되여 듯기를 다 흐미 문득 일성장호의 피를 토하고 업연흔도하니 심시 황황망극하여 아모리홀 줄 모로노지라.”

30) 『范文正忠節言行錄』 권22, 45-47쪽.

심 부인의 개가이다.

인용문에 따르면 심 부인이 개가하는 데는 귀매가 일으킨 여러 사건이 계기로 작용했다. ‘허다 조화리는 표현에 드러나듯 귀매 옥난은 범인(凡人)이 제어하기 어려운 조화를 여러 번 부러 심 부인을 곤경에 빠트렸던 것으로 보인다. 권1에서 심 부인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귀매의 갖은 작란(作亂) 때문에 뜻하지 않게 개가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후당은 재구본에서 귀매의 작란(作亂)을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 장 처사라는 인물을 내세워 심 부인이 개가하는 상황을 만든다. 권2 이후 장 처사는 간혹 언급된다. 권15에 심 부인은 그로 인해 가산을 탕진했다고 나온다.³¹⁾ 또 분면에는 호환을 만나 장 처사가 죽었다는 백흥의 말에 심 부인이 시름을 풀었다고 나온다. “시름 허던 아미 널니”라는(권15, 52쪽) 표현에서 심 부인이 장 처사에게 원한이 맺힌 정황이 드러난다. 또 권5에서 범중엄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심 부인을 보러 오지만, 장 처사는 그간 해온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 장 처사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애달아한다.³²⁾ 권2-15에 이르는 장 처사에 대한 서술을 종합하면 그는 호환으로 죽을 만큼 행실이 나쁘고 욕심 많은 성정에, 심 부인과 좋지 않은 일로 엮인 인물이다.

사후당은 권2-15에 나오는 장 처사에 대한 간소한 서술을 토대로, 그를 개가에 관여하는 협잡꾼으로 형상한다. 재구본에서 장 처사는 범윤보 사후 범부의 대소사를 도우며 심 부인에게 접근한다. 그런 뒤, 기화이초의 대금을 대신 치르며 심 부인의 환심을 산다. 또 그는 비단 장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심 부인을 꾀다. 결국 심 부인은 장 처사에게 속아 모든 재산을 탕진한다. 장 처사가 친 사기로 인해 가산을 날린 심 부인은 범중엄의 앞날을 걱정해 주 거인에게 개가한다.

사후당이 귀매의 작란을 없애고 장 처사의 사기 행각을 위주로 사건 내막을 구성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다. 장 처사의 사기 행각은 뒷이야기를 토대로 재구할 수 있는 반면, 귀매의 작란은 장 처사의

31) 『范文正忠節言行錄』 권15, 29쪽. “도로허 당 처스를 한하야 저런 쥬려흔 흥인을 집의 닐위여 세전하논 전답을 업시코.”

32) 『范文正忠節言行錄』 권5, 27쪽. “장 처식 범 한님이 등양하여 왓시물 드르미 나아와 구경코즈 허나 전일 허온 비 잇는지라 볼 닛치 업서 거쥬 출유하를 청탁하고 와 보니 거인이 실쇼하를 마지 아니코 한님이 드린 빅은 오십 냥과 갑 다섯 필을 보더니 장처식 회출망외하여 한님을 친히 상접홀진디 금은필빅을 남과 2치 어들 거술 이달나 전일을 빅번 뉘웃츠나.”

행각과 역을 복잡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만큼 더 많은 분량이 필요할 것이다. 분량의 문제를 고려해 귀매의 작란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개가가 귀매의 작란이었다는 사실은 줄곧 드러나지 않다가 권22에 이르러 밝혀진다. 숨겨진 내막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구할 때 해당 이야기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귀매의 작란은 후반부에야 밝혀지는 내용이고 개가에 관여한 장 처사의 행적이 간헐적으로 보여, 사후당은 장 처사를 위주로 개가의 내막을 구성했다고 하겠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사후당이 장 처사를 형상하는 방식이다. 사후당은 단순히 ‘성정이 나쁘다’는 서술에 그치지 않고, 그의 내력과 일화를 보여준다. 장 처사가 전에도 비슷한 사기를 쳤던 일화를 보여줌으로써³³⁾ 인물의 성정을 납득할 만하게 형상한 것이다. 구체적 일화로 성정을 형상했기 때문에 재구본에서 장 처사의 사기 행각은 갑작스럽지 않다. 사후당이 사건 내막을 재구하며 인물 형상에도 심혈을 기울인 정황이 이러한 서사 구성에 드러난다. 사후당은 단순히 이어질 만한 사건 몇 개를 재구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내막이 모두 어울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쓴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사후당 재구본의 내용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 (1) 범윤보 내력 소개
- (2) 범윤보의 꿈에 제갈공명이 현신해 아들로 태어날 것을 예언한다.
- (3) 범윤보가 병이 들어 관직을 버리고 소주로 낙향한다.
- (4) 범중엄이 태어난다.
- (5) 구양 부인(범중엄의 고모)이 범윤보를 걱정해 구양 생을 보낸다.
- (6) 장순 내력 소개
- (7) 장순이 비단 장사로 왕 생을 유혹해 사기를 친다.
- (8) 여러 곳을 떠돌던 장순은 소주에 정착한다.
- (9) 구양 생이 범윤보를 문안한다.
- (10) 범윤보 기세한다.
- (11) 구양 생은 상사(喪事)를 돕고 경사로 올라간다.
- (12) 장순이 심 부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다.
- (13) 장순은 범부(范府)의 대소사를 봐주며 심 부인의 환심을 산다.
- (14) 장순은 비단 장사를 미끼로 심 부인에게 사기를 친다.
- (15) 장순은 도망가고 심 부인이 뒤늦게 사실을 안다.

33) 『范文正忠節言行錄』 권1, 24-29쪽.

- (16) 심 부인은 근근이 생활한다.
- (17) 심규현의 처 장씨가 상산 주 거인에게 심 부인을 말한다.
- (18) 주 거인의 부탁을 받은 장씨가 심 부인을 설득한다.
- (19) 심 부인은 장씨의 설득 끝에 주 거인에게 개가한다.
- (20) 유모 열엽은 고택에 남는다.
- (21) 백홍이 부친과 친우 사이 이야기를 엿듣고는 사실을 범중엄에게 말한다.
- (22) 범중엄은 심 부인에게 사실을 묻는다.

위 서사 단락에 드러나듯 재구본 권1은 주인공 부친의 내력 소개로 시작한다.³⁴⁾ 내용은 여느 소설과 마찬가지로. 유형적 도입부라 하겠는데 여기서 고전소설의 전형을 따라 서사를 재구한 상황이 드러난다. 이처럼 고전소설의 전형을 따른 대목은 태몽에서 확인된다. 고전소설은 거의 빠짐없이 주인공의 태몽을 이야기한다. 재구본도 예외가 아니나, 다만 제갈공명이 현몽해 범중엄을 점지하는 내용은 특기할 만하다. 현몽한 제갈공명은 자신을 소개한 후 “국조를 통일치 못흔 한을 풀고 창성을 구조호려 전심 부친인 적선지가 범시게 싱출”한다.³⁵⁾

그런데 이 태몽은 고전소설의 서사문법을 따르면서도 그 설정은 전체 서사와 긴밀하지 않다. 앞서 살폈듯이 『범문정록』 권22에서 “범문정은 전신이 위장”이라(45쪽) 나오기 때문이다. 사후당이 제갈공명을 범중엄의 전신으로 설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이 짐작된다. 작중 범중엄은 서하·거란·북한이 침입하자 대원수로 출정한다. 그는 목상(木像)을 만들어 적의 화살을 뺏기도 하고 진법 대결을 하기도 한다. 작중 범중엄이 쓰는 신이한 술법은 『삼국지연의』의 제갈공명이 썼던 것과 아주 비슷하다. 사후당은 이러한 대목을 염두에 두고 범중엄의 전신을 제갈공명으로 설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재구본에서 심 부인이 기화이초를 기르는 대목도 면밀히 계산된 삽화로 볼 수 있다. 범문형 사후, 심 부인은 부지런히 양잠하고 하인을 단속해 생활을 영위한다. 이때 심부인은 가중이 광활해 기화이초를 기른다.

34) 『范文正忠節言行錄』 권1, 7-8쪽. “대송 진종 년간의 황성 취석교의 일위 단일 명철헌 직상이 잇스니 성은 범이요 명은 문형이요 자는 윤보요 별호는 성암이라 대대 잠영이요 교목세가라 공의 위인이 검공자인호고 충효과인호며 문장은 니두 갖고 수신제가의 금육 갖호니 인니친척과 일시 사류의 추앙호는 비러라.”

35) 위의 책, 11쪽.

소주 향주는 기화이초와 신이훈 새와 기이훈 즙싱이 만흔 곳이라 기중이 광활하고 문전이 명녀흔 고로 각식 일흠난 꽃과 이상흔 풀을 심으고 모란은 씨 엷는 꽃이라 상셔롭지 아니타 하여 아니 심으고 굴나무와 석뉴남며 녀지나무를 널리 심무고 중업이 항상 익모새를 사랑흔는 고로 익모새와 각식 기며흔 새를 길너 깃겹게 흐고 닭의도 특별흔 종뉴를 노아 보게 흐고 우마와 양시와 견만 아니 기르더라³⁶⁾

장 처사는 여러 계기를 가지고 심 부인의 환심을 산다. 집안 대소사를 처리해주기도 하고, 기화이초의 대금을 대신 치르기도 한다. 사후당은 위와 같은 삽화를 미리 설정함으로써 장 처사가 환심을 살 계기를 미리 마련한 셈이다. 재구본에서 이러저러한 계기로 환심을 사던 장 처사는 중국에 비단 장사를 하라며 사기를 쳐 심 부인의 전 재산을 앗아간다.

사후당은 권1의 핵심 사건이라 할 심 부인의 개가를 재구하며, 특히 형상에 심혈을 기울였다. 뒷이야기에 장 처사에 대한 언급은 드물지만, 개가에 관여하는 핵심적 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사 단락 (6), (7), (8)은 장 처사의 내력에 해당하고, (12), (13), (14), (15)는 장 처사의 사기 행각에 해당한다. 사후당은 이처럼 계기성을 확보할 다양한 선행담(先行譚)을 마련함으로써 심 부인이 개가하는 과정을 납득할 만하게 보였다고 하겠다.

사후당은 사건 내막을 꼼꼼하게 재구하는 한편, 서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후당은 낙선재 소설의 특징으로 세밀한 필치의 서술을 폈었다. 앞서 언급했듯 “조선 왕실의 소설은 문자가 좋고 운곽이 크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며 일거일동을 섬세하게 그려 읽을수록 끌려든다”고³⁷⁾ 평가기도 했다.

재구본 문면에는 사후당이 낙선재본 소설의 표현 방식을 잘 살리려고 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다음은 원본 『범문정록』 권9에 보이는 인물의 외관을 서술한 대목이다.

너의 험가지로 추슈를 닷갓는 듯 붉고 붉앗거늘 옥용이 참담하여 추공 계슈의 교월이 수식하고 화안이 익원하여 옥계 방향의 지란이 광풍을 만는 듯 미양지뉴는 봄빛을 교덕하고 태익지부용은 그를 빗출 근심하니 세세이 말을 거두는 사이의 도도히

36) 위의 책, 40-41쪽.

37) 각주 8) 참조.

구슬이 썩어지니 진주 아미의 처식이 동하니 성안의 추위 요동하니 휘황한 축영을
 인하여 더욱 승절하여 ㄱ을 하늘의 슈증을 쓰러시며 설봉빙방의 일만 미해 드토아
 양귀를 씹는 듯 푸른 눈섭은 초산의 봄빛치 처음으로 기여시니 팔각 아황의 반월이
 희미하고 일쌍 봉안은 흰 날이 얼프시 추수의 흐르는 듯 미우의 칙운이 냉냉하고
 운번의 교육이 염염하니 봉의 초요의 장단광협이 득기풍도하여 세세히 말슴을 발하
 힘운이 흐르고 명월이 지나는 듯 더욱 슈려하고 쇠락하여 맑은 골격은 턱의 어름
 ㄱ고 조흔 기절인 형산의 박옥 ㄱ하니.....38)

이처럼 낙선재본 소설은 많은 분량을 할애해 인물의 외관을 서술한다. 이러한 양상은 여타 고전소설과 분명히 다르다. 물론 비슷한 점도 있다. 고전소설은 대체로 자연 경관에 인물의 외관을 비유한다. 낙선재본 소설도 그렇다. 그러나 낙선재본 소설 가운데서도 대장편소설의 서술 필치는 훨씬 더 세밀하며 분량이 긴 편이다.

아래 재구본에서 적자(赤子) 범중엄을 형상한 대목을 보인다. 비교를 위해 다른 소설의 외관 묘사도 함께 제시한다.

좌정을 한 후 한 번 바라보되 용모는 부상명월이 드러시 벽공의 걸녓는 듯 티도는
 금분모란이 흡연히 조로를 색엿는 듯 일쌍 아미는 춘산의 비겻는 듯 낭기 성모는
 추하의 잠겻는 듯 섬섬세요는 춘풍의 양위 휘두른 듯 첩첩 주순은 임기 단스를 먹음은
 듯하니39) - 『숙영낭자전』

도련임 조와라고 자서이 살펴보니 요〃정〃하야 율티화용이 세상의 무쌍이라 얼굴
 이 조출하니 청강의 노난 학이 설 월의 빗침 갖고 단순호치 반기하니 별도 갖고
 옥도 갖다 연지를 품은 듯 자하상 고은 티도 어린 안기 석양의 빗치운 듯 취군이
 영농하야 문치는 은수물결 갖다40) - 『춘향전』

신성헌 기절은 강보의 나타나고 명민헌 기상은 유치의 뜻이 비여다 화시의 빅벽이
 보지 못하니 혜왕의 진취 빛나물 사양홀지라 활갓흔 눈섭은 천정을 쉼쳐스니 강산의
 수귀를 거두엇고 긴 눈은 빈발을 가르치니 일월이 연화를 모도와 문광이 숙연한대
 용준일각의 인연이 귀인기상이라 쇠락함이 광풍패월 갖고 영농함이 태양 흥늬 갖흐니
 교〃혀여 창해의 용 갖고 표〃혀여 구오의 봉 갖흐니 고운이 아흐라흔 대 은학이
 아니면 구후의 늪흔 늑국이라 귀한 상과 달흔 피 갖초 괴이하니 방실을 핑수하여

38) 『范文正忠節言行錄』 권9, 41-44쪽.
 39) 황패강 역주, 『숙영낭자전』, 『한국고전문학전집』 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250쪽. 이문규, 『고전소설의 서술원리』(새문사, 2010), 230쪽에서 재인용.
 40) 『春香傳』 上(완관본), 12a쪽; 『韓國古小說板刻本全集』 3(國學資料院, 1997), 320쪽.

사후당은 적자(赤子)의 외관을 자세하게 서술한다. 이러한 양상은 위에 제시한 『숙영낭자전』, 『춘향전』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세 작품 모두 자연 경관에 비유해 외관을 형상한다. 이는 고전소설 인물 묘사의 공통된 방식 가운데 하나로 앞서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위에서 드러나듯 재구본의 경우 그 필치는 여타 작품에 비해 더 세밀하다. 사후당은 재구하면서 세밀한 필치가 돋보이는 낙선재본 소설의 서술 양상을 숙고해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 필치는 작품 전반에 산견된다. 인물 외관과 더불어 정경을 묘사한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래는 사임한 범윤보가 소주로 요양하러 가는 대목이다.

시당 양추 구 월이라 청풍이 날호여 이어나고 추우오동엽낙시라 만산홍국이 봉오리를 밧고져 호고 옥노경향호여 수풍의 찬 이슬이 나리며 붉은 낙엽이 편야호며 실솔이 처처의 우리 시절을 밧귀엿스니 반야 오동의 명월이 장소를 쉰 수인의 회포 비홀 길 업느니라 인거사마로 절도사 가는 길도 아니요 열토봉왕호여 본국즉위호는 거동도 아니라 심이 자연 요동호고 슬프니 글을 지어 회포를 펴나 기운이 업서 읊조리지 못호더라⁴²⁾

위 인용문에서 추색(秋色)은 다양한 경물을 통해 형상된다. 사후당은 정경을 형상하기 위해 청풍(淸風), 홍국(紅菊), 한로(寒露), 낙엽(落葉), 실솔(蟋蟀) 등을 동원한다. 이러한 경물로써 촉각·시각·청각 요소를 종합해 서늘한 가을 풍경을 적절히 그려낸다. 그래서 낙향하는 이의 객수(客愁)와 배경으로서 추색은 잘 어우러져 쓸쓸한 정취를 자아낸다. ‘붉은 낙엽 들에 널렸고, 귀뚜라미 곳곳에 울어’리는 표현 역시 이러한 정취를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인용문의 가을 정취는 작중 윤보의 심리 및 몸 상태에 연계된다. 위 인용문에서 윤보는 추색에 느낀 바 있으나 읊지 못한다. 병환이 깊기 때문이다. 병들었다는 말을 생략했지만 기운이 없어 글을 쓰고도

41) 『范文正忠節言行錄』 권1, 19-20쪽.

42) 위의 책, 17-18쪽.

음조리지 못한다는 서술은 병환의 정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대목은 단순히 사건을 끼워 맞추는 수준을 넘어 사후당이 적절한 구성과 문학적 서술을 갖춘 완전한 작품을 목적으로 두고 재구에 입한 정황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재구 양상 가운데 사건 내막의 구성과 표현 방식을 살폈다. 이제껏 논의에 드러났듯, 사후당은 뒷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 흐름을 고려하면서도 창의력을 발휘해 사건 내막까지 꼼꼼하게 재구했다. 특히, 심 부인이 개가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장 처사를 심혈을 기울여 서술했다. 단순히 성정이 울곧지 못했다는 서술을 넘어 심 부인을 만나기 전 벌였던 사기 행각을 보여 인물을 그럴듯하게 형상하고 서사 흐름에 개연성을 확보했다. 또 사후당은 재구를 하며 표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낙선재본 소설의 표현 방식을 유념했던 사후당은 섬세한 필치로 인물 외관과 정경을 형상했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할 때 사후당은 단순히 누락된 사건을 복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한 편의 작품으로 여겨질 체제와 내용을 갖춰 재구본을 완성했다고 하겠다.

IV. 맺음말: 재구본의 자료적 가치

사후당은 ‘여차여차’해 개가했다는 단편적 서술에 기반을 두고 창의성을 발휘해 사건 내막과 관여한 인물의 형상을 그럴듯하게 재구했다. 여기에 더해 표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인물 외관을 자연 경관에 비유해 섬세하게 묘사하는가 하면, 자연 경관과 인물 심리를 교집해 서술하기도 했다. 따라서 비록 『범문정록』 권1은 재구본이지만, 사건 구성과 인물 형상, 또 묘사에 사후당의 창의성이 고루 발휘된 문헌으로 볼 수 있다.

이 문헌이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세기까지 ‘녹책(錄冊)’이라 일컬어지던 일련의 대장편소설이 여성독자를 위주로 계속 향유된 정황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 가운데 이원주의 조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다.⁴³⁾ 다만, 이 문헌은 ‘읽는다’는 단순한 향유를 넘어, 결락된

43)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집(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5), 557-553쪽.

부분을 재구하는 적극적 향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러한 의의에 기반을 두고 다음의 가치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재구본은 조선시대 고전소설 여성작가의 탄생과정을 따져볼 자료로 가치가 있다. 이 재구본은 마땅한 소설 창작 교육이 없던 시대에 여성작가가 탄생하는 과정의 일면을 보여준다. 당시에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은 작품을 필사하고 누락된 부분을 재구하며 소설 창작 방식을 '체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심스런 추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재구 작업은 본격적 창작에 앞서 서사 구성을 익히는 주요한 경험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셋째, 여성작가의 역량을 가늠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살폈듯이 사건 구성, 인물 형상, 묘사에서 사후당의 창의성을 간취할 수 있다. 설사 짧아서 원본 『범문정록』 권1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사후당이 창의성을 발휘해 재구한 사실은 변함없다. 후기에서 사후당은 송나라 사기와 뒷이야기를 참조해 필즉필하고 삭즉삭했다고 말한다. 한적을 검토하고 뒷이야기를 참조해 재구한 것이다. 조선시대 여성작가들도 한적을 검토하고 연의소설 등 시대 배경이 같은 작품을 참조하면서 역사적 인물을 긴 분량 속에 다뤘을 것이다.

재구본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조명할 만한 문헌이었다. 그러나 이는 재구본 하나에 집중해 얻은 성과일 뿐이다. 조선시대 여성의 소설 창작 활동을 보여주는 여타 자료와 함께 재구본을 활용할 때, 소설사의 주요한 축을 차지하면서도 그 실상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던 여성작가의 다양한 면모가 더 선명히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논고를 기약하겠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國學資料』 3(文化財管理局 藏書閣, 1972).
- 『范文正忠節言行錄』 卷一(윤백영,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청구기호: 4-6809).
- 『范文正忠節言行錄』(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청구기호: 4-6809).
- 『正史紀覽』(윤용구,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청구기호: 2-149).
- 『韓國古小説目録』(古典資料叢書 8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漢文目録』(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청구기호: 2-4986).

《선데이서울》 7호. 서울신문사, 1968년 11월.

《주간여성》. 한국일보사, 1973년 9월.

《중앙일보》. 1966년 8월 25일자.

2. 논저

- 김기열, 「사후당 윤백영 한글 서예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8쪽.
- 김준범, 「〈范文正忠節言行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심경호, 「낙산재본 〈寇萊公貞直節記〉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14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50쪽.
- 이경희, 「〈范文正忠節言行錄〉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민정, 「〈寇萊公貞直節記〉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43-46쪽.
- 이상택, 「〈보월빙연작〉의 구조적 반복원리」. 『한국고전소설의 이론』 II, 새문사, 2003, 231쪽.
-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5, 557-553쪽.
- 임치균, 「18세기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일양상 -〈옥환기봉〉을 중심으로-」. 『韓國 古典研究』 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158쪽.
- _____, 「왕실, 소설에 빠지다」. 『藏書閣-장서각에서 옛 기록을 만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69쪽.
- 정병욱, 「낙산재문고본 목록 및 해제」. 『한국 고전의 재인식』, 기린원, 1988, 401-408쪽.
- 천혜봉·윤병태, 「附錄·演慶堂諺文冊目録」.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의 特性』,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367쪽.
- 한길연, 「〈백계양문선행록〉의 작가와 그 주변」. 『고전문학연구』 27집, 한국고전문학회, 2005, 331쪽.

홍현성, 「〈남계연담〉의 특징과 그 의미」. 『정신문화연구』 34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22쪽.

_____, 「〈范文正忠節言行錄〉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4-27쪽.

국 문 요 약

이 글의 논의대상인 『범문정충절언행록(范文正忠節言行錄)』 권1은 사후당 윤백영(1888-1986)이 장서각장의 부탁을 받아 1969년 뒷이야기와 역사책을 참조해 재구한 문헌이다.

후기에 따르면 재구본은 1969년에 성책(成冊)된다. 그렇지만 이 재구본은 태몽 등 고전소설의 낯익은 화소를 빼놓지 않았으며, 인물 외관 서술 역시 자연 경관에 비유해 인품을 표현하는 전형적 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 아래아를 사용하는 등 고어 표기가 보인다. 따라서 사후당이 재구한 『범문정충절언행록』은 현대에 쓰인 고전소설로 볼 수 있다.

재구본의 전체 서사는 뒷이야기에 맞춰 구성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내막은 사후당의 창의력으로 쓰였다. 또 사후당은 서사의 개연성을 확보하려 특히 인물의 형상을 고려했다. 따라서 이 문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재구되었다는 점과 창작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에서는 재구본을 조선시대 여성의 적극적 독서 실태를 보여주며, 여성작가의 역량을 확인할 가치를 지닌 문헌 자료로 보았다.

투고일 2013. 6. 20.

심사일 2013. 7. 29.

게재 확정일 2013. 8. 5.

주제어(keyword) 윤백영(Yun, Baeg-yeong), 낙선재(Nakseonjae), 재구본소설(Restoration novel), 여성작가(Woman novelist), 『범문정충절언행록』(*BeomMoonJeongChongjeol-EonHaengRok*)

